

“국민사와 냉전: 환태평양적 비평” 토론문*

박명규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매우 흥미로운 발표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글로벌한 시야에서 동아시아의 역사 문제, 국가주의 역사 서술의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또 실천적 함의까지 담아 좋은 발제를 해주신 요네야마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학자로서 요네야마 교수님의 이번 발제문을 읽고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동시에 여러 가지 질문도 생겼습니다. 몇 가지 궁금함과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 드리는 것으로 논평자로서의 역할을 다할까 합니다.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냉전 후 시대(post Cold War era)’ 또는 ‘냉전 후 체제(post Cold War regime)’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이런 시대 개념으로 이해하시려는 것이겠지요. 첫번째 질문은 이런 시대 구분이 ‘제2차 세계대전 후 시기(post World War II era)’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요네야마 교수님 글 속에서는 이 두 시기가 연속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1945년 이후의 시대와 1990년대 이후 시대 간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

* 이 글은 2016년 4월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인터아시안 커넥션 V: 서울 총회(InterAsian Connections V: Seoul)’의 리사 요네야마(Lisa Yoneyama) 교수(토론토 대학교)의 기조연설에 대한 필자의 토론 내용을 원고로 정리한 것이다.

인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를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공간적으로도 명확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서 ‘아시아 내(inter-Asia)’, ‘아시아 간(intra-Asia)’, ‘환태평양(transpacific)’이라는 개념들의 구분을 해 주셔서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용어들과 발제문에 사용하고 계시는 탈국가(transnational), 탈경계(transborder)라는 말들이 호환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엄밀하게 구분되어야 하는지 좀 더 세밀한 설명을 덧붙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 요네야마 교수님의 핵심적인 논지, 즉 1990년대 후반 보상요구, 또는 보상운동이 단순하게 잊혀진 역사적 사실을 복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인식론적 전환(epistemic shift)을 가져온 매우 중요한 계기였다는 점에 대해서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음을 공감합니다만, 그 인식론적 전환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사적 전환이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실패 사례’가 되고 말았다고 보시는지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는 일본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탈냉전 시기 이후에 등장했던 정의, 역사 재인식, 보상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약화되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주의, 민족 정서가 확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대 보상운동의 전반적인 성과를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만약 이것이 냉전 후기에 여러 차례 있었던 실패 사례와 동일한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면, 또는 실패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대한 정도의 ‘인식론적 전환을 충분히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다면 그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강한 국가 때문인가, 아니면 미국 문제 때문인가, 또는 실천과 운동의 약화 때문인가 하는 점도 더불어 궁금해집니다.

셋째, 제가 궁금한 부분은 냉전 후기 시대를 특징짓는 여러 내용을 언급하셨습니다만, 중국의 대두를 빠뜨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한 마디로 냉전 후기의 시대상에 중국 효과(China effect)를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아시아의 경우 1990년 이후의 시기는 단순히 탈냉전이라는 이념 해소의 차원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오랫동안 잊혀졌던 중국의 부상이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국의 새로운 부상,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 중국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들이 아시아에서 새롭게 나타나

고 있는 역사 인식, 역사 쟁점과 깊이 맞물려 있는 것이지요. 요네야마 교수님의 냉전 후 체제 설명에서도 미군의 주둔, 미국 헤게모니 질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한다고 보이지만 중국의 부상, 중국 변수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는 것이 보완,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넷째, 요네야마 교수님께서 여러 개별 국가에서 나타나는 역사 논쟁을 다루시면서 일본 안에서 보수파의 반발, 일본의 교과서 운동, 이에 대한 한국이나 중국의 반응을 서로 다른 유형의 민족주의로 보지 않고 상호간에 깊이 연결되고 상호 연동되는 현상(deeply interrelated, entangled phenomena), 또 어떤 면에서는 동일한 과정의 여러 측면(simultaneous aspects of same process)으로 보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국가 간 역사 논쟁은 결코 개별 국가 내부에서만 이해될 수 없고 역사 인식의 보편화, 국제화, 세계화 현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교과서 논쟁이나 위안부 논란이 단순히 일본 문제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지식인과 한국의 문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역으로 일본의 교과서 논란이 다시 한국의 교과서 서술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이어지고 여성주의적 시각과 민족주의적 관점이 서로 영향을 주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국 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일본, 중국의 역사 논란이 서로 맞물려 있고 상호 연동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충분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상호 연동과 함께 ‘책임(responsibility)’의 문제를 부각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컨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의 과정, 맥락의 상동성을 밝히는 것과 함께 여전히 정의(justice)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좀 더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최근 지구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엔탱글먼트(entanglement)라는 개념 속에 어떻게 개별 주체별로 상이한 책임과 평가가 내포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견해 하나를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요네야마 교수님 발표에서 제가 가장 공감했고 또 좋게 읽은 부분은, 국가 간 역사 논쟁의 해결이 정치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일종의 지식 생산의 정치(a kind of politics of knowledge production)라는 주장, 다시 말해 현재를 어떻게 ‘정의(define)’하고 무엇이 ‘수정’되고 ‘보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 체계(knowledge frame), 지식 구조

(knowledge structure)를 바꾸는 문제라는 견해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앞서 언급한 인식론적 전환(epistemic shift)을 지속하는 문제와 연결되겠지요. 이런 주장은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시대적 역할을 일깨우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네야마 교수님께서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두고 동아시아 인식 구조에 접근하고 계시는데, 21세기 상황에서 정말 제대로 된 동아시아 지식 구조, 인식론적 전환을 이루어내려면 한반도의 복합적인 역사로부터 접근해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현재의 한반도는 남북 간에 체제 대결, 이념적 긴장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 여전히 냉전 상황을 지속하고 있는 곳입니다. 일본과의 사이에서는 식민지 잔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끊임없이 민족주의적 요구와 반발로 회귀합니다. 중국과는 아주 오랫동안 중화제국질서에 속해 있던 역사적, 문화적 기억이 중첩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이 자리하고 있는 매우 복잡한 현상입니다. 한반도가 특수한 곳으로서가 아니라 냉전과 냉전 후 시기를 포괄하는 동아시아의 복합적 긴장이 중첩된 곳으로 재인식되고 세계적 차원의 역사 해석, 전 지구적 차원의 지식 구조를 만드는 일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투고일: 2016년 8월 6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7일